『中國學』第85輯 (2023.12.31.)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23.85.85.29
pp.615-637. ISSN : 1229-9618

징진지(京津冀) 협력발전을 위한 문화전략 연구*

박정희**

【목 차】

1. 들어가면서
2. 역사문화 맥락의 현재화
3. 징진지 공간 재편의 문화논리
   1) 기능적 분산을 위한 문화적 포섭 - 퉁저우(通州)
   2) 사장된 지역성의 재발견을 통한 국제화의 재현 - 슝안신구(雄安新区)
4. 나오면서

【초록】

이 글은 중국 징진지 협력발전이 계획되고 실천되는 과정에서, 역사·문화적 자원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즉 중국의 문화정책과 공간정책이 연동되어 실천되는 양상을 살핀다. 징진지 협력발전 계획은 베이징과 톈진, 허베이를 연조문화를 공유하는 동질적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특히 대운하, 장성, 서산 영정하라는 3대 문화벨트를 통해 세 지역을 베이징 중심의 동질적 문화기억의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자연화한다. 한편 퉁저우를 부중심으로 건설하여 베이징의 행정 기능과 비수도적 기능을 분산한다. 그리고 신도시 개발지구로 슝안신구를 지정한다. 이를 위해 중화문명의 태동·다원적 문화통합·대외무역의 태동과 유산이라는 이미 소멸된 지역성을 재발굴하여 소환하는 문화논리를 작동시킨다. 이 고유의 지역성은 국가 자긍심의 신장, 세계도시 건설이라는 슝안신구의 기획과 실천이 역사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데 기여한다.

【키워드】 징진지(京津冀), 문화, 공간 재편, 퉁저우(通州), 슝안신구(雄安新区), 세계도시

---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6053568)

** 박정희,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barkxin@hanmail.net)

1. 들어가면서

2015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와 국무원(国务院)은 「징진지 협력발전 계획강요(京津冀协同发展规划纲要)」(이하 「강요(纲要)」로 약칭)를 중차대한 미래 국가정책전략 중 하나로 제시한다. 「강요」의 핵심 내용은, 베이징의 비수도(非首都)적 기능을 질서 있게 해소하고 징진지(京津冀-베이징, 톈진, 허베이) 협동발전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강요」 제기의 저변에는, 중국과 베이징이 직면하게 될 국내외 미래 상황은 급변하게 될 터이기에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미래 대응의 내용은 "시대의 변화에 대응해 천년 도시 베이징의 역사유산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은 어떤 수도를 건설할 것인가? 도시 계획 건설의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동발전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야 하는가"[1]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새로운 역사적 조건과 관련된 이 문제의식의 배경은 다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베이징을 대국(大國)의 수도에 걸맞은 모습으로 그리고 베이징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군을 세계적인 도시군으로 건설하는 것이 중국이 글로벌 경쟁과 분업에 참여하는 데 중요한 핵심조건이라는 것이다. 즉 베이징은 중국이 글로벌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주요 플랫폼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중앙 정무환경의 최적화나 수도 핵심기능의 강화는 물론이고 특히 대국의 수도에 상응하는 국제교류 기능 강화가 새로이 요구되었다. 이 점은 「강요」에서 베이징의 새로운 정위로 '국제 교류 중심'을 추가한 데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베이징의 새로운 도시 정위를 위한 시도는 이전부터 제기된 것이었다. 2005년 1월 12일 원자바오(温家宝) 당시 국무원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개최하여 「베이징 도시 총체계획(北京城市总体规划)」(2004-2020)을 채택하는데, 여기서 "베이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이자 전국의 정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도이자 현대적인 국제도시"로 천명되었다. 더불어 이 계획의 '총칙(总则)'은 "세계도시 건설이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세계도시 시스템에서 베이징의 위상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환경오염, 교통혼잡, 교육과 의료 시설 등의 공공 서비스 부족 같은 베이징의 '대도시병(大都市病)'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1) 石晓冬·杨明, 「京津冀协同下的北京城市发展转型」, 『北京规划建设』, 第5期, 北京市城市规划设计研究院, 2016.09., p.81.

베이징은 인구·자원·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대도시병을 더욱 심각하게 체감하기 시작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령 2005년 「베이징 도시 총체계획」의 '총칙'은 "수도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신속한 발전을 실현하고 도시 발전에서 직면한 많은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목표를 결정하고 새로운 공간을 개척하고 새로운 지원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2]고 천명한다. 이에 따라 신도시 전략을 수립·실천하는데, 그 핵심내용은 중심도시의 기능과 인구를 뉴타운으로 이전함으로써 대도시병을 관리·해소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 그래서 2015년의 「강요」는 이 문제에 대해 적지 않은 태도 변화를 보인다. 베이징의 대도시병을 해결하기 위해선 징진지 협동발전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베이징의 도시 기능과 인구를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일방적으로 분산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던 기존의 위계적 방식을 수정하려 한다.

셋째, 중국내 상황들을 비교할 때 베이징 지역 발전, 즉 징진지 협동발전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장삼각(长三角)·주삼각(珠三角)과 징진지는 두 대도시와 발달도가 낮은 하나의 2차 도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했지만, 이중 징진지의 인구와 성진(城镇) 체계는 가장 낙후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징진지 지역은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경제, 문화와 과학기술 중심으로 장강삼각주(长江三角洲),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와 함께 중국 3대 인구와 사회경제 활동의 집결지다. 그러나 현재 도시 경제 총량의 지표로 보면 징진지 지역의 GDP는 장삼각에 훨씬 못 미치고 주삼각의 전체 수준보다 낮다."[3]

요컨대, "「강요」는 세계의 다극화와 중국의 역할 전환, 국가 경제 발전의 새로운 국면 진입과 도시 발전의 전환이라는 배경 하에서 나온 것이었다. 수도 핵심기능 강화, 비수도 기능 완화, 징진지 협동발전 추진, 인구 경제 밀집지역의 최적화 개발모델 모색 등을 통해, '대도시병'을 해결하는 한편 전국 지역협동 발전체제 및 메커니즘 혁신의 경험을 제공하여 도시의 발전목표, 문제분석에 있어 시범적인 가치를 구현"[4]하기 위한 기획이었다. 「강요」는 글로벌에서의 국가위상 제고, 수도 도시발전의 방향성 모색과 더불어 이를 위한 도시기능 재편성, 공간·체제 재편, 지역 협동 등과 같은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 셈이다.

징진지 협력발전의 핵심 내용은 "일핵, 쌍성, 삼축, 4구역, 다중 교점(一核、双城、

---

2) 陆大道, 「京津冀城市群功能定位及协同发展」, 『地理科学进展』, 第34卷 第3期, 中国地理学会, 2015.03., p.269.

3) 刘勇·姚舒扬, 「文化认同与京津冀协同发展」, 『北京联合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第3期, 北京联合大学, 2014.07., p.36.

4) 王红茹, 「专家解读《京津冀协同发展规划纲要》看点」, 『中国经济周刊』, 第18期, 人民日报社, 2015.05., p.52.

三轴、四区、多节点)"[5]을 골격으로 삼아,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을 완화하고 중요한 도시를 지점으로 구축하여 전략적 기능구역 플랫폼을 조성함으로써 교통간선과 생태회랑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공간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이미 장강삼각주 도시군(长江三角洲城市群), 광둥성 홍콩 마카오 만구(粤港澳大湾区) 등과 같은 도시군들을 계획하여 건설한 바 있었다. 이 메가시티 혹은 메갈로폴리스들은 서비스업, 제조업, 국제 과학기술 센터 등을 중심으로 경제 발전을 이룬 세계적인 도시군들이다. 반면, 징진지 협력발전이 추구하는 징진지의 도시성(urban-ness)은 중국의 기존 메가시티 혹은 메갈로폴리스와는 다르다. 경제 중심이 아니라 정치·경제·문화·생태를 종합적·복합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의도가 징진지 지역에 투사되었다. 징진지 지역에 이러한 방향성이 제시된 데에는, 징진지가 중국 여타의 메가시티 혹은 메갈로폴리스와는 다른 역사·문화적 유산을 지닌 곳이라는 독특한 장소성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경제 위주가 아니라 복합적인 도시 성장 그리고 이를 통한 세계도시로의 성장이라는 징진지 발전계획의 목표는 이런 역사적 맥락[6]을 문화적 배경으로 삼아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다.

세계도시·메가시티 연구의 대다수는 도시 형성과정에서 초국적 자본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국가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세계도시 이론가인 사스키아 사센(Saskia Sassen)과 존 프리드먼(John Friedmann) 또한 세계도시 형성은 초국적 자본에 의해 주도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여지는 축소된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세계도시에 대한 연구 역시 주로 금융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세계도시군 건설을 목표로 내세운 징진지 협력발전에 관한 연구 또한 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졌으며, 주목할 만한 문화 관련 연구는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현실정이다.

하지만, 문화는 경제 발전의 직접적인 수단도 아니고 경제 발전에 즉각적인 효과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경제 발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임에 분명하다. 더구나 징진지 발전계획은 중국 메가시티 혹은 메갈로폴리스와는 다른 성격·

---

5) 中共中央·国务院, "京津冀协同发展规划纲要", 2015.04.30., https://baike.baidu.com [2023.09.10.] 一核: 北京市京津冀协同发展的核心; 双城: 北京和天津; 三轴: 京津, 京保石, 京唐秦三个产业发展带和城镇聚集轴; 四区: 中部核心功能区, 东部滨海发展区, 南部功能拓展区, 西北部生态涵养区; 多节点: 石家庄, 唐山, 保定, 邯郸 等区域性中心城市, 张家口, 承德, 廊坊, 秦皇岛, 沧州, 邢台, 衡水等节点城市.

6) 여기서 '역사적 맥락'은 시진핑(习近平)이 징진지 관련 문건에서 자주 사용한 용어인 '문맥(文脉)'을 의역한 것이다. '문맥'은 "문화의 근맥(根脉)과 혈맥(血脉)" 즉 "문화적 유전자와 정신"을 의미한다. 시진핑이 '문맥'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는 의도는, 중화민족 정체성·문화전통의 자산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이를 미래의 문화번영, 문화강국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有文化自信的民族, 才能立得住, 站得稳, 行得远." 吴耀明, "习近平总书记强调的'文脉'", 『学习时报』, 2023.10.25., http://www.qstheory.cn [2023.11.05.]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중국 중앙정부의 주도로 기획되고 실천되고 있다는 점 즉 경제적 측면을 최우선시하는 대신 메갈로폴리스의 근본 성격이기도 한 정치·경제·문화·생태 등의 복합적 성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강화함으로써 세계도시의 자리를 공고히 하려 한다는 점에서 징진지는 기존의 중국 메가시티와는 차별화를 표방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역사·문화적 측면에서 징진지 내 도시들의 동질성을 발굴·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기존의 대도시병 해소 실패를 극복하고 대국의 수도·세계도시적 면모를 강조하려 하기에, 이 공간의 기획과 실천은 역사·문화적 성격 또한 핵심 인자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2023년 5월 시진핑(习近平)은 허베이(河北)를 시찰한 후 개최된 징진지 관련 좌담회에서 "징진지를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선행구이자 시범구"[7]로 규정한 데서도 확인된다.

이에, 이 글은 중국이 징진지를 세계도시군으로 건설하는 데 있어 역사·문화적 맥락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중국의 문화정책과 공간정책이 어떻게 관계 맺으며 실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가치는, 현재 개발 중인 징진지를 통해서 중국식 현대화·중국식 세계도시군 건설에 문화논리가 기여하는 양상을 선행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있다.

2. 역사문화 맥락의 현재화

지나간 시간은 오늘날의 시간 속에서 여전히 똑딱거린다.[8]
- 에두아르도 갈레아노

징진지의 세 지역인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의 지방정부는 특히 "문화 강성(文化强省)" 건설의 요구에 따라 문화가 강한 도시(文化强市)와 문화강성(文化强省) 건설을 일찍부터 계획하여 지역문화 발전 계획과 정책을 제정하여 발표했다. 하지만, 개별적인 정책과 소통의 부족으로 인해 징진지 세 지역은 총체적이고 통일된 문화발전 계획과 지원정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징진지 지역은, 지연이 서로 이어지고 사람의 관계가 가깝고 지역 문화가 일맥상통하기에 완전히 융합하여 협동 발전할 수 있다"[9]는 2014년 시진핑의 지적은 개별

7) 杜尚泽·杨旭, "从十年里的三场座谈会，看总书记这样引领京津冀协同发展", 『国际在线』, 2023.05.15., https://baijiahao.baidu.com [2023.11.08.] "努力使京津冀成为中国式现代化建设的先行区，示范区."

8) 徐勇, 「物的关系美学与"主体间性"——徐则臣《北上》论」, 『南方文坛』, 第3期, 广西文联, 2019.05., p.153. "过去的时光仍持续在今日的时光内部滴答作响."

적이었던 문화정책을 포괄적이고 단일한 계획 안으로 포섭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2015년 중앙정부는 「강요」를 발표하고, 제18차 당대회 보고와 중앙 도시공작회의(中央城市工作会议)(2015)에서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고양"하고 "도시 역사 문맥을 이어나가 선인들이 남긴 문화유산을 보호"[10]할 것을 강조한다. 징진지 협동발전은 국가전략의 중요한 목표로 부상했는데, 이 과정에서 징진지 공동의 문화유산은 이 국가전략을 추동하는 핵심적인 인자로 간주되었다.

연조(燕赵)문화가 징진지 세 지역 문화의 공동 모태로 발견되어 부각되었다. 현재는 연조를 허베이(河北)라 부르지만, 연조 구역의 동쪽 경계는 바다였고 남쪽 경계는 황하(黄河)였으며 서쪽과 북쪽 경계는 각각 태행산(太行山)과 연산산맥(燕山山脉)이었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지리적 경계는 "유주 땅은 왼쪽으로는 바다까지, 오른쪽으로는 태행까지, 북쪽으로는 거용, 남쪽으로는 황하까지다"[11]는 과거의 구절을 통해 역사적 정당성을 획득했다. 이 구절은 징진지의 산과 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묘사했는데, 이러한 지연적 연결에 기초하여 예로부터 징진지의 인문·정치·상업은 융합관계를 형성했던 것으로 간주되었다. 연조의 지리적 경계는 징진지 지역을 포함하기에, 징진지는 공통의 문화를 배경으로 한 공간,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쉽게 융합되고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맥락화 되었다.

연조문화의 발원지였던 징진지 지역은, 이미 진(秦)시기부터 오대(五代)시기까지 지청(蓟城)과 고대 판양(古范阳)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 융성지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베이징이 국가의 수도가 되면서 이 도시는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 중심지가 되었고, 베이징-중심지, 바오딩(保定)-부중심지라는 문화지형도 또한 구축되었다. 북위(北魏), 수당(隋唐) 시기부터 징진지 지역은 이미 다민족 융합지대과 혼거지대가 되었다. 청대의 청더(承德)는 민족 사무를 처리하는 중심지였고 장자커우(张家口)는 몽골과 러시아를 향한 개방의 지역이었다.

하지만 천여 년에 걸친 "연조문화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점차 각기 특색 있는 베이징 문화, 톈진 문화와 허베이 문화를 형성해 갔다."[12] "비록 연조문화는 강개한 비가(慷慨悲歌)를 공통된 특징"으로 삼았지만,[13] 군사·정치·문화·경제·대외교류와 공업

9) 文魁, 「地缘经济与地缘文化——京津冀协同发展理论启示」, 『前线』, 第11期, 中共北京市委, 2019.11., p.62. "京津冀区域地缘相接, 人缘相亲, 地域一体, 文化一脉, 完全能够融合, 协同发展."

10) 姜潇·蒋芳·周润健, 「中央城市工作会议点出的文化课题: 续"文脉" 提"气 质"」, 『决策探索』, 第1期, 河南省人民政府发展研究中心, 2016.01., p.16.

11) [清]孙承泽, 『天府广记』(上册), 北京古籍出版社, 1982, p.6. "幽州之地, 左环沧海, 右拥太行, 北枕居庸, 南襟河济."

12) 池志勇·刘琳, 「推进京津冀地域文化融合形成大区域文化的探索」, 『产业与科技论坛』, 第15卷第3期, 河北省科学技术协会, 2016.02., p.23.

13) 陈旭霞·张平, 「慷慨悲歌: 燕赵文化精神的根本标志——燕赵文化精神理论研讨会综述」, 『河北学刊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징진지 지역의 공간배치는 역사적으로 다채롭게 변화했다. 이 변화가 각 지역 발전·변화에 일정한 영향을 끼치면서 징진지 지역들은 독특한 특색을 지닌 지역문화를 각각 형성하게 되었다.

징진지 내 도시들의 정치적 기능은 도시지위의 변화에 따라 부단히 조정되었다. 가령, 베이징은 제후국(诸侯国) 수도, 지역중심도시, 북방정권 핵심, 국가수도 등으로 부침을 거듭해야 했다. 베이징의 정치적 기능으로 인해 징진지 지역에서는 전체적으로 황실문화와 관료문화가 발전했다. 동시에, 군사, 관청, 상업무역, 조운, 대외교류 등으로 인해 징진지의 문화는 수도문화와 수도 주변문화로 분할되었으며 강력한 위계와 느슨한 위계 사이를 넘나들었다.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던 징진지 지역의 상업무역이 발전하게 된 때는 베이징이 북방정권의 중심지, 국가의 수도가 된 후부터였다. 요, 금 시대 베이징은 북방민족 정권의 제2의 수도로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진행되는 도시가 되었고, 원(元), 명, 청 시대에도 도성의 상업문화는 계속 발전했다. 반면, 바오딩(保定), 정딩(正定) 지역은 수도 남부 상업과 무역 중심지로 성장했고, 장자커우(张家口)도 북방 무역의 핵심이 되었다. 근대에 이르러 톈진항과 친황다오(秦皇岛) 항구의 대외개방으로 인해 톈진은 수도 주변의 대외 무역항, 금융중심지로 변모해갔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으로 인해 징진지의 도시들은 일정한 차이를 지닌 문화들을 각기 형성해갔다. 베이징의 황성문화(皇城文化), 톈진의 조운문화(漕运文化), 허베이성의 직례문화(直隶文化)가 그것이다. 세 지역은 점차 서로 다른 문화 분위기를 형성하였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분화는 밀접한 상호관계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다. 톈진의 조운 문화는 수도 베이징의 다양하고 수많은 수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으며, 허베이의 직례 문화는 베이징이 수도 지위를 장기적으로 유지한 데서 비롯되었고, 베이징 황성 문화의 발전 역시 톈진과 허베이가 제공하는 각종 자원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징진지 세 지역의 각 문화는 긴밀한 상호 네트워크를 토대로 각기 발전해갔다. 역설적이게도, 이 네트워크로 인해 각 지역은 각자의 발전을 도모하게 되었으며, 지역문화는 분화되었고 연조문화라는 공동의 문화에 대한 인식 또한 약화되었다. 베이징은 타고난 우월감과 기질로 황성문화를 향유하면서 타 지역과의 교류를 단절시켰다. 베이징의 관료문화는 장삼각(长三角)이나 주삼각(珠三角) 지역들과는 달리 징진지 지역 내부의 문화적 갈등을 격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톈진의 조운문화는 비록 개방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징진지 문화융합의 문제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허베이의 직례문화는 징진 지역에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 第6期, 河北省社会科学院, 2014.11., p.194.

각종 이익을 누렸지만, 오히려 이런 단기적인 이익으로 인해 허베이는 점차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잃어버리고 급속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징진지의 새로운 공동문화를 건설하는 데 장애물로 전락했다고 평가받기도 한다. 한편, 자원 분배와 사회복지 측면에서 볼 때 1950·60년대에 진행된 행정구역 분할로 인해 징진지 지역 내에 격차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징진지 지역 내 문화적·역사적 교류나 통합은 점점 멀어져갔다. 세 지역문화의 분화가 현재 징진지 협력과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14]

징진지 협력발전이라는 21세기 중국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 연조문화라는 징진지 공동의 문화가 새로이 부각되고 재조명된다. 세 지역의 문화가 아무리 개성을 살린다고 해도 "이 모두 연조문화의 축적과 분화"[15]의 자장 내에 있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공통의 문화적 배경, 인접한 공간과 연결된 인맥, 공유되는 지역사와 문화의 토대 등은 여전히 강고하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징진지 세 곳 특히 베이징과 톈진 사이에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1930년대 형성된 경파(京派)문학 작가군의 징진(京津) 문화 정체성이 대표적인 예증이다. 경파문학은 1930년대 독특한 문학유파였는데, 周作人, 沈从文, 废名, 林徽因, 师陀, 朱光潜, 梁宗岱, 李健吾 등이 핵심 구성원이었다. 이들 작가들은 베이징에 모여 있었지만 베이징인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었으며, 이들의 활동공간도 베이징에 국한되지 않고 징진(京津)지역 전체로 확대되었다. 경파의 간행물인 『대공보·문예부간(大公报·文艺副刊)』은 베이징과 톈진 작가의 협업을 통해 톈진에서 창간되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징진지 지역은 공동의 문화적 자산을 통해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세 지역의 차이·분화 심화되고 지역문화의 고유성이 강조되어가던 시기에, 징진지 협력발전 계획은 국내외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세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동질성을 요구하고 나선 셈이다. 세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동질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공감의 표준을 계획하고 구체화하여 실천한다. 공간적 실천의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3대 문화벨트(三个文化带)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징진지 협력발전 계획강요(京津冀协同发展规划纲要)」에 이어 2017년 발표된 「베이징 도시 총체계획(北京城市总体规划)(2016年－2035年)」(이하 「총체계획」으로 약칭)에서 시작된다. 「총체계획」은 "2개의 100년"[16]이라는 목표에 기반하여 '5위일체(五位一体)'[17]라

14) 池志勇·刘琳, 「推进京津冀地域文化融合形成大区域文化的探索」, 『产业与科技论坛』, 第15卷第3期, 河北省科学技术协会, 2016.02., p.23.

15) 池志勇·刘琳, 「推进京津冀地域文化融合形成大区域文化的探索」, 『产业与科技论坛』, 第15卷第3期, 河北省科学技术协会, 2016.02., p.23.

16) "中国共产党第十九次全国代表大会在京开幕", 『国务院新闻办公室网站』, 2017.10.18., http://www.scio.gov.cn [2023.11.07] 첫 100년은 중국 공산당 창건 첫 100년이 되는 해를 가리키는데, 이

는 국가전략과 '4대 전면(四个全面)'[18] 전술을 징진지 협력발전계획과 연계시켜 구체화한 계획안이다. 이 계획안은 대운하 문화벨트(大运河文化带), 장성 문화벨트(长城文化带), 서산 영정하 문화벨트(西山永定河文化带) 건설을 추진한다고 천명한다.

3대 문화벨트라는 문화 공간의 형성과 생산은 징진지 역사문화 기억의 재구성과 관련된다. 문화적 기억은 역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될 뿐만 아니라 특정 시대의 사회·정치·문화적 맥락에서 집단과 개인이 수행하는 기억 실천을 통해서도 형성된다. 한편, 문화공간은 기억의 공간적 실천의 결과물인 동시에 집단적 기억의 근거·출발점으로도 기능한다. 따라서 문화적 기억과 기억의 공간적 실천은 분리될 수 없으며 이 둘은 항상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특정 집단의 문화적 기억 형성과 자연화에 기여한다. 문화벨트 구역은 주민의 일상적 경험 공간인 동시에 상상력을 변화시키고 자기 것으로 길들이려고 시도하는 공간이다.[19] 3대 문화벨트는 문화적 기억과 문화공간을 연동하여 구성해내려는 목적에서 계획된 셈이다.

만리장성 문화벨트는 「총체계획」에서 제기한 역사문화도시·국가 문화중심 건설·베이징 문화가치 등에서 핵심적인 내용·사업에 해당한다. 장성 문화벨트의 제안을 "베이징 역사 문맥의 발굴"로 해석하는 데서 나아가 "장성 문화유산 보호 작업의 심층 확장 및 징진지 통합의 발전에 중요한 문화벨트 건설과 징진지 협력개발 전략을 결합하는 시도"[20]로 설명한 이유도 이 문화벨트가 문화기억과 문화공간의 연동을 통해 동질적 문화권의 회복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만리장성 문화벨트와 그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了不起的长城>, <长城抢险>, <烽火长城> 등의 기록영화가 제작되었는데, 이 재현의 공간 역시 공동의 문화기억을 형성하고 강화하여 공간을 효과적으로 재편하는 데 일조하려 했음은 물론이다.[21]

해에는 전면적으로 샤오캉(小康)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100년은 신중국 건국 100년이 되는 해를 가리키는데, 이 해에는 부강하고 민주적인 문명이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17)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十八大)(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의 전체적인 내용은, 경제 건설, 정치 건설, 문화 건설, 사회 건설 및 생태 문명 건설 등의 오위일체(五位一体)다. 중국이 오위일체를 천명한 것은 중국식 사회주의의 현대화가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진입했음을 그리고 중국식 사회주의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인식이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되곤 한다.

18) 4대 전면(四个全面)은 전면적인 4개 목표의 전략적 배치를 가리킨다. 여기서 전면적인 4개 목표는, 전면적으로 풍족한 사회 건설(全面建成小康社会),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全面深化改革), 전면적으로 법에 의거한 국가 통치(全面依法治国), 그리고 공산당에 대한 전면적이고 엄중한 통치(全面从严治党)이다.

19)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p.88.

20) 王铭·赵振烨, 「京津冀多维联动发展 : 北京长城文化带建设新画卷」, 『新视野』, 第2期, 中共北京市委党校·北京行政学院, 2022.03, p.97.

21)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p.135 참조.

서산 영정하 문화벨트의 홍색(红色)문화는 수도문화 구역에 대해 새로운 규정이 진행된 현장이다. 이 구역의 홍색문화에 대한 이전의 연구서와 글은 주로 행정 구역, 공산당의 역사와 사건, 공산당의 역사적 인물 연구를 위주로 서술되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프로젝트에서는 새로운 서산 영정하 문화 벨트의 공간적 지역을 대상 범위로 획정함으로써 서산 영정하 문화를 수도 문화로 변경한다. 그리고 이 공간의 홍색문화가 가진 의미, 특성, 전시 등을 논한다. "서산 영정하 홍색문화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와 영향 아래 서산 영정하 지역 인민이 신민주주의 혁명 투쟁 중에 형성한 혁명 문화"[22]로 규정될 뿐만 아니라, "공산당과 인민의 위대한 투쟁에서 배양된 혁명문화와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문화로 구성"된 문화로서 "전국 문화중심 건설에서 중요한 베이징의 자원"[23]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장신뎬(长辛店), 루거우차오 완핑청(卢沟桥宛平城), 샹산(香山) 등 7대 홍색 전시군을 서산 영정하에 건설한 후 이를 베이징의 홍색문화라며 홍보하고 계승을 강조한다."[24] 서사 영정하가 중국 전국의 홍색문화를 발원지로 고양될 때 징진지 세 지역의 차이·분화가 국가적 동질성 아래 예속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2017년 시진핑은 운하와 관련해 "대운하는 조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소중한 유산이다. 전면적인 계획을 세워 대운하를 유동적인 문화로 잘 보존하고, 잘 계승하고, 잘 활용해야 한다"[25]는 지시를 내린다. 이 지시의 구체적 실천 계획안이 「총체계획」이다. 「총체계획」은 대운하 문화벨트를 베이징과 징진지 역사문화와 도시 보호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대운하 국가문화공원 계획을 발표하고 시행한다. 연이어 2019년 2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中共中央)와 국무원(国务院)은 「대운하 문화 보호 계승 및 활용 계획 개요(大运河文化保护传承利用规划纲要)」를 발표하면서 "대운하 문화의 함의를 깊이 발굴하여 풍부하게 하며, 대운하 유산에 담겨진 문화를 충분히 보여주고, 대운하 흐름에 동반되는 문화를 활성화하고, 대운하 역사의 세련된 문화를 고양해야 한다"[26]라고 강조한다.

대운하 문화벨트 건설이라는 국가전략을 관철하기 위해 징진지 세 지역은 각각 대운하 보호 건설 실시계획과 실행계획을 연속적으로 수립했으며 세 지역의 협력도 점

---

22) 李彦冰, 「北京西山红色文化的政治价值」, 『前线』, 第2期, 中共北京市委, 2018.02., p.81.
23) 刘岳·高俊良·方东杰, 「西山永定河文化带红色文化内涵、特色及展示群打造」, 『北京党史』, 第4期, 中共北京市委党史研究室, 2019.07., p.29.
24) 刘岳·高俊良·方东杰, 「西山永定河文化带红色文化内涵、特色及展示群打造」, 『北京党史』, 第4期, 中共北京市委党史研究室, 2019.07., p.28.
25) 路璐, 「擦亮大运河文化带这一国家名片」, 『红旗文稿』, 第13期, 求是杂志社, 2019.07., p.28. "大运河是祖先留给我们的宝贵遗产, 是流动的文化, 要统筹保护好, 传承好, 利用好."
26) 中共中央办公厅·国务院办公厅印发, "大运河文化保护传承利用规划纲要", 『新华社』, 2019.05.09., https://www.gov.cn [2023.11.05.]

차 긴밀해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곽수경 기념관(郭守敬纪念馆), 만수사(万寿寺), 팔리교(八里桥) 등 50여 곳의 수문, 교량, 고대 유적지, 고대 건축물들이 보수를 거쳐 대운하 베이징 구간을 따라 배치되기 시작했다. "대운하 국가문화공원은 국가 주도로 조성된 문화공간으로 기념, 교육, 홍보 등 특별한 기능과 의미를 지닌 기억의 장이다."[27] 현재 징진지 세 지역은 대운하 문화벨트의 공동 건설 및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대운하 문화 보호 및 활용을 위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세 지역의 연선 문화, 관광 및 기타 자원을 통합하여 일련의 문화 활동을 구축함으로써 운하문화를 공동 계승하고 홍보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관계 형성에는 "역사상 대운하는 바로 징진지 경제 인문의 중요한 연결고리이기에, 징진지는 조화롭게 통일된 운하문화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28]는 학계의 관련 연구 또한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 대운하 국가문화공원 건설은 중국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문화 프로젝트로 새로운 시공간적 조건에서 문화 기억을 재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대운하, 장성, 서산 영정하 문화벨트는 징진지 세 지역의 동질성을 재건하기 위한 방편이지만, 이 동질성은 베이징 문화를 중심으로 한다. "베이징 문화 중심 건설은 장성 문화벨트, 운하 문화벨트, 서산 문화 벨트 등 전반적인 문화재 보호를 제시한다. 이것은 '3개의 문화적 벨트' 건설의 작업 목표를 통해 개괄된다"[29]는 지적도 베이징 중심의 동질성 확보에 주목한다. 나아가 베이징을 중심으로 세 지역문화의 동질성을 확정하는 것은 역사적 정당성을 지닌 것으로 설명된다. 다음의 지적들을 통해서도 징진지 협동발전에서 베이징이 차지하는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 3대 문화벨트(三个文化带)는 베이징을 전국 문화중심으로 건설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베이징의 역사를 볼 때 서산 영정하 문화벨트는 베이징 도시의 탄생과 성장의 요람이다. 장성(长城)은 중원의 농경민족과 서북 초원민족 융합한 지역의 최전방 방어진지일 뿐만 아니라 남북 민족경제와 문화교류의 연결고리이기도 하고 국가 수도인 베이징의 중요한 장벽이기도 하다. 대운하는 항상 수도를 향해 건설되었다. 특히 경항대운하(京杭大运河)의 베이징 구간은 대운하와 수도인 베이징의 정치, 경제, 문화의 긴밀한 관계를 반영한다. 따라서 '3대 문화벨트' 건설의 내용은 베이징 문화를 중심으로 건설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30]

---

27) 王秀伟·白栎影, 「大运河国家文化公园建设的逻辑遵循与路径探索——文化记忆与空间生产的双重理论视角」, 『浙江社会科学』, 第10期, 浙江省社会科学界联合会, 2021.10., p.76.
28) 霍艳虹, 「基于"文化基因"视角的京杭大运河水文化遗产保护研究」, 天津大学博士论文, 2017.05., p.56.
29) 李建平, 「"三个文化带"与北京文化中心建设的思考」, 『北京联合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第15卷第4期, 北京联合大学, 2017.10., p.15.
30) 李建平, 「"三个文化带"与北京文化中心建设的思考」, 『北京联合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第15卷第4期, 北京联合大学, 2017.10., p.15.

중앙정부는 3대 문화벨트 계획을 통해 베이징의 위치를 국가문화 중심 및 세계문화도시로 정위하는데, 베이징은 이 계획을 포괄적·체계적·결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31]

징진지 공동의 역사문화가 각인되어 있는 공간인 대운하, 장성, 서산 영정하를 보수·복원하여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문화벨트로 재건하는 작업은, 국내적으로는 징진지 지역의 협력과 문화정체성을 베이징 중심으로 추동·구축하는 작업인 동시에 중국 전통문화도시 베이징의 정체성을 미래 세계도시·메가시티의 정체성으로 고양하려는 의지와 연결된다.

3. 징진지 공간 재편의 문화논리

1) 기능적 분산을 위한 문화적 포섭 - 퉁저우(通州)

2015년 「강요」는 퉁저우(通州)의 근본 정위(定位)를 베이징 부중심(副中心)으로 재규정한다. 즉, 퉁저우를 베이징의 비수도적 기능을 완화하기 위한 공간, 톈진과 허베이를 연결하는 협력발전의 거점도시로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베이징의 공간구조를 재편하여 개발공간을 확장하고 대도시병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베이징을 중심으로 중국 특색의 세계도시군을 건설하기 위해 부중심을 개발할 계획을 세우는데, 그 건설지로 퉁저우가 선정된 것이다.

「총체계획」은 베이징의 전략적 정위를 "전국정치중심, 문화중심, 국제교류중심, 과학기술혁신중심"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베이징을 핵심으로 삼아 세계도시군을 건설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베이징 도시의 전략적 정위 구현, 비수도적 기능 완화, 징진지 협력발전 촉진, 고도(古都)로서의 역사성·장소성 유지·강화, 대도시병 해소 등을 실천 내용으로 제기하는데, '1핵 1주 1부, 2축 다점 1구(一核一主一副, 两抽多点一区)'[32]의 도시 공간구조 계획은 위 실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구상에서 출발한다.

그 계획의 핵심내용은 단일 중심 집합발전 모델을 도시 중심(一主)-부중심(一副)의

31) 胡九龙, 「北京三大文化带影响力比较分析」, 『前线』, 10期, 中共北京市委, 2018.10., p.83.

32) 이 구조는 「北京城市总体规划(2016年一2035年)」에서 확정된 베이징 도시공간 구상을 담았다. 一核指首都功能核心区; 一主指中心城区, 包括东城区, 西城区, 朝阳区, 海淀区, 丰台区, 石景山区; 一副指城市副中心; 两轴指中轴线及其延长线, 长安街及其延长线; 多点指5个位于平原地区的新城, 包括顺义, 大兴, 亦庄, 昌平, 房山新城; 一区指生态涵养区, 包括门头沟区, 平谷区, 怀柔区, 密云区, 延庆区, 以及昌平区和房山区的山区.

분산 모델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베이징 도시구조는 "'단일 중심(单中心)'과 '동심원(同心圆)'으로 확장되는 배치"를 기본으로 삼았는데 이것이 "도시 공간구조 모순의 근원"[33]이 되어 정치·상업·문화· 교육·의료·관광 등 도시의 핵심 기능이 단일 중심에 집중되게 되었고 이런 현상이 도시의 구심력을 강화하여 베이징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베이징의 중심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던 기능들을 새로이 건설할 부중심으로 이전할 경우 부중심은 기존 중심에서 작동하고 있는 구심력을 완화하는 원심력을 발휘해낼 것이라는 계산이다. 부중심이 기존 중심의 기능들을 분담함에 따라 교통, 환경 등의 대도시병이 완화될 것이며, 베이징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기존 베이징의 비수도적 성격 해소, 베이징의 새로운 정위 성취라는 데서 부중심의 필요성이 제기된 셈이다. 이런 취지의 부중심지로 선택된 공간이 퉁저우다.

퉁저우는 사통팔달이라는 현재의 지리적 이점과 함께 베이징의 동서 중축선(中軸線)인 창안제(长安街)의 동쪽 연장선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창안제는 베이징을 확장하고 퉁저우를 부중심으로 확정하는 데 역사·문화·공간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기준선으로 작용했다. 창안제의 이런 기능을 나누어 맡은 것은 운하(運河)다.

> 베이징 부중심 건설은 베이징 도시의 새로운 계획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퉁저우에 '샤오슝안(小雄安)'을 건설하여 랑팡 북삼현(廊坊北三县) 지역과 함께 퉁저우를 발전시키면 퉁저우는 슝안 신구와 함께 수도의 '일체 양익(一体两翼)'이 될 것이다. 물과 도시가 어우러진 도시를 건설하려는 기본 목표를 달성하려면, 퉁저우 대운하 문화벨트 건설을 촉진하여 베이징 부중심 건설과 대운하 문화벨트 건설을 공동으로 실현해야 한다. 따라서 신시대 퉁저우에서 운하문화를 발굴하고 역사적 맥락을 강화하여 베이징 부중심으로 건설하는 것이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34]

「베이징 도시 부중심 통제성 상세계획(北京城市副中心控制性详细规划)(街区层面)(2016-2035年>)」(이하 「부중심계획」으로 약칭)의 내용은 「강요」와 「총체계획」에서 비롯되었다. 「부중심계획」은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제3장의 내용은 "물과 도시의 조화(水城共融), 남색과 초록색의 교차(蓝绿交织), 문화 전승(文化传承)이라는 도시 정체성을 부각하여 독특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것"[35]이다. 나아가 「부중

33) 赵弘·陈志国, 「将通州建设成为北京城市副中心的战略思考」, 『北京市经济管理干部学院学报』, 第26卷第1期, 北京经济管理职业学院, 2011.03., p.12.
34) 郗志群·熊志鹏, 「北京城市副中心文化建设的回顾与展望」, 『新视野』, 2期, 中共北京市委党校·北京行政学院, 2020.03., p.108.
35) 陆健, "深度解读 | 带您了解北京城市副中心控规", 『北京新闻广播』, 2019.01.04., https://mp.weixin.qq.com [2023.10.30.]

심계획」은 퉁저우 내의 유산과 문화재 보호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제시한다. 그것은 "역사 수계 복원, 테마 경관 조성, 퉁저우 고성, 고성문과 해자 등으로 구성된 역사적 성곽을 중점적으로 복원한다"[36]는 것이다. 「부중심계획」의 이 내용은 특히 「총체계획」에서 출발한다. 「총체계획」은 부중심지의 성격을, 베이징의 독특한 면모를 형성하는 운하 문화벨트 건설에 일축을 담당하는 동시에 세계유산 및 문화재 보호단위 공간으로 이미 정립해 놓았던 것이다.

퉁저우를 부중심으로 확정하기 위한 문화논리는 창안제와 운하라는 역사적 정당성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창안제의 연장이라는 정당성이 과거가 아닌 미래에 대한 상상에서 획득되는 것이라면, 운하의 강조는 과거 역사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퉁저우의 역사 문화적 유산은 중국 대운하 북단 수혜지라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강조되었다. 퉁저우의 역사문화 유산으로 제시된 것은, 경항대운하(京杭大运河)와 이에서 유래된 연등불사리탑(燃灯佛舍利塔), 삼교묘(三教庙), 노현고성유적(路县古城遗址), 그리고 운하문화의 역사, 인문, 풍속습관 등이 각인되어 있는 구도심의 18개 반절 후퉁(十八个半截胡同), 중창(中仓), 후남창(后南仓), 검량루(验粮楼) 등이었다. 덧붙여 경항대운하의 퉁저우 구간은 그 길이가 42km에 달하는데 이는 베이징 전체 구간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도 빠뜨리지 않는다. 말하자면 퉁저우의 풍부한 문화유산은 대운하 수혜의 결과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퉁저우는 오랫동안 수도로 통하는 요충지였다. 한(汉)대에 루현(路县)이 건설되면서 지금까지 2,200여 년의 도시사를 이어오고 있는데, 퉁저우는 예로부터 수륙의 요충지이자 중요한 조운의 창고였다"[37]는 정리가 가능해진다.

퉁저우의 미래 도시전략 또한 여기서 출발한다. 운하문화 전승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형성하고 역사경관 조성을 강화하여 대운하 문화 브랜드 이미지를 육성하는 한편, 징진지 내부문화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문화적 창의성과 문화 전시기능을 성장시켜 문화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운다. 이를 위해 대운하 문화벨트와 녹색삼림공원을 연계하여 새로운 지역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한다. 기존의 운하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시녹심 삼림공원(城市绿心森林公园), 퉁저우 대운하 삼림공원(通州大运河森林公园) 등의 생태공원을 도시경관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시키고자 한다. 이 생태벨트를 포함해 문화벨트·산업벨트·협동발전벨트 등은 대운하 문화 브랜드 구축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38] 운하자원을 중심으로 한 퉁저우의 이

36) 高珊珊, "速看! 北京城市副中心控制性详细规划(街区层面)全文来了", 『北京日报客户端』, 2019.01.04., https://baijiahao.baidu.com [2023.10.18.]

37) 郑育娟, 「地域文化符号对城市形象提升的思考: 以北京城市副中心为例」, 『今传媒』, 第3期, 今传媒杂志社, 2020.03., p.56.

38) 武文娟, "通州区打造'大运河文化+'系列品牌", 『青瞳视角』, 2023.05.26., https://baijiahao.baidu.co

러한 방향성은 베이징의 미래도시 정체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지작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물과 도시, 자연과 문명, 역사와 첨단기술이 공존하는 세계도시라는 베이징의 꿈을 퉁저우가 선취하고 있는 셈이다.

퉁저우에 이 같은 새로운 도시 정위가 요구된 결정적 계기는 2017년 2월 시진핑의 베이징 퉁저우구 조사였다. 시진핑은 이 자리에서 "대운하를 보호하는 것은 운하를 따라 들어서 있는 모든 지역의 공동 책임이다", "대운하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잘 전승하고 잘 활용하라는 중요한 지시를 여러 차례 내렸다. 북운하(北运河) 문화의 맥락을 잘 계승하고 전통과 현실의 연결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는 과업은 새 시대 대운하 발전의 새로운 주제가 되었다"[39]고 천명한다. 이에 앞서 2015년 시진핑은 중앙도시공작회의에서 "자신의 역사적 전승, 지역문화, 시대적 요구를 결합해 자신의 도시정신을 만들어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이미지를 수립하고 대내적으로는 인심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었다. 중앙권력의 연이은 요구에 따라, 2020년 퉁저우구는 베이징시 대운하 문화벨트 보호건설계획과 베이징시 부중심 통제 상세계획을 결합하여 「퉁저우구 대운하 문화벨트 보호건설계획(通州区大运河文化带保护建设规划)」을 제정하여 발표한다.

「부중심계획」이 공표된 후 퉁저우는 급속도로 부중심으로 건설되기 시작했다. 지역·국가 간 문화·무역 교류를 위한 비즈니스 기지, 본부 기지 등이 들어섰고, 운하문화 핵심구역이 건설되기 시작했다. 부중심의 성격은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징진지 협력발전을 성취하기 위해 역사문화적 측면에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지향성에 의해 결정되었다. 중국 언론이 퉁저우와 관련해 가장 먼저 부각한 것은 2019년 1월 베이징시 행정중심이 공식적으로 도시 부중심으로 이전한다는 사실이었고, 이후 보도된 것은 2021년 9월 베이징시 부중심 정무서비스센터가 공식적으로 운영되어 시민에게 각종 행정 사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베이징 시 행정기관의 1만 7천여 명이 퉁저우로 이주했다.[40]

대운하와 관련된 기사는 그 이후에 급증하기 시작한다. 운하와 관련된 수많은 중국 언론의 기사들은 운하 문화벨트 보호와 건설 문제를 퉁저우 문화정책에서 명실상부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했다. 문화·관광의 융합이 핵심 주제로 떠오른 때는 퉁저우의 행정 사무 구역이 어느 정도 건설·정비된 2021년 이후였다. 부중심의 행정 사무 구역에 계획된 지상 총 건물 규모는 약 366만m2였는데 2021년 당

---

m [2023.10.02.]

39) 刘源隆, "千年文脉融入生活, 京津冀重现运河活力", 『中国文化报』, 2021.07.15., https://baijiahao.baidu.com [2023.10.13.]

40) 杜尚泽·杨旭, "从十年里的三场座谈会, 看总书记这样引领京津冀协同发展", 『国际在线』, 2023.05.15., https://baijiahao.baidu.com [2023.11.08.]

시 공정률은 약 60%였다. 베이징시 정부(北京政府) 등을 포함한 소위 핵심 '4대 4소(四大四小)'[41], 운영 구역(启动区)과 관련 지원 주택 및 직원 주택 등은 이미 건설되었는데, 이 건축물들은 단정하고 중후하며 간결하고 현대적이라고 평가받기도 했다.[42] 또한, 사무구(办公区)는 개방적인 공공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도로, 녹지, 광장, 수역(水域) 등을 위한 부지 비율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행정 사무 구역(行政办公区)은 '산수조경 도시' 건설의 개념에 따라 생태를 우선시하는 안정적인 현대도시 정원의 모습으로 사무실 구역의 조경관을 구축했다"[43]는 평가가 있기도 했다. 이처럼 녹색·생태·예술 등이 중심어로 등장하면서 운하문화예술제, 지역사회문화제 등의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생태, 운하, 문화 등의 문제는 부중심 계획 단계부터 중요하게 고려되었지만, 이 역사·문화적 고려와 정당성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공간적 실천을 통해 구체화되어 시민의 동의를 얻게 된 것은 훨씬 이후였다. 역사적·문화적 규정력이 사후적 정당화 작업으로 오인되면서 계획 주체와 시민 사이에는 일정정도의 인식적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퉁저우는 역사·문화적 규정력과 인식적 격차 즉 기존 베이징 중심의 구심력이 원심력을 장악하거나 구심력과 원심력이 충돌하고 있는 현장이라 할 수 있다.

2) 사장된 지역성의 재발견을 통한 국제화의 재현 - 슝안신구(雄安新区)

2017년 4월 1일, 신화통신사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허베이성에 슝안신구(雄安新区)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다. 슝안신구는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을 해소하고 대도시병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되고 탄생한 공간이었다.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래, 시진핑을 중심으로 당 중앙은 징진지 공동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전략을 수립한다. 주된 문제는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을 해소하고 인구 및 경제 밀집 지역의 최적화 개발 모델을 구축하고 대도시병을 해결하기 위한 중국 특유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수도의 핵심 기능을 견

41) 叶书利, "北京政府四套班子正式迁往通州, 北三县与通州一体化规划或春节后公布", 『壹书生说房』 2019.01.12., http://www.jiwu.com [2023.11.08.] 4대 분과(四大班子)는 베이징시 위원회(北京市委), 베이징시 정부(北京政府), 베이징 인민대표 대회(北京人大), 베이징 정치협상회의(北京政协)를, 그리고 4소 분과(四小班子)는 베이징 발전개혁위원회(北京发改委), 재무 행정 기관(财政局), 기획위원회(规划委), 주택건설위원회(住建委)를 가리킨다.

42) 杨旸, 「北京城市副中心行政办公区城市风貌特色研究」, 『北京规划建设』, 第1期, 北京市城市规划设计研究院, 2021.01., p.108.

43) 杨旸, 「北京城市副中心行政办公区城市风貌特色研究」, 『北京规划建设』, 第1期, 北京市城市规划设计研究院, 2021.01., p.113.

지하고 강화하는 한편 수도에 적합하지 않은 기능들은 조정·축소한다. 이를 위해 일부 기능은 허베이(河北)와 톈진(天津)으로 옮기는 것이 우(大禹)의 치수 도리다"[44]라고 결정한다. 신구 건설은 이 대회 이후 계획·착수되었다. 중앙재경(中央财经) 영도소조 제9차 회의에서 「징진지 협동발전 계획요강」을 심의·연구하는 과정에서 "도시 추가 건설"(多点一城) 즉 신도시 건설과 함께 "오래된 도시의 재편(老城重组)"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 회의는 기존 베이징 밖에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발판을 제공했다. 하지만 부지 선정부터 계획 및 건설까지 직접 결정을 내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슝안신구의 형성과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은 총서기 시진핑이었다. 2017년 2월 23일 시진핑은 "슝안신구의 계획 건설은 중대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 전략적 선택이다.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을 해소하고 징진지의 협력발전을 추진하는 역사적인 프로젝트"[45]라고 신도시 건설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후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第二十次全国代表大会)(2022년) 보고서는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을 완화하고 징진지 협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높은 수준에서 출발하고 계획된 슝안신구를 건설한다"[46]고 천명한다.

슝안신구 건설의 취지는 대략 5개로 정리되는데, "1)수도권의 문화적 맥락을 소통시키고, 2)세계 선진문화를 융합하며, 3)인문정신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선도하며, 4)양질의 문명으로 생태문명을 보호하며, 5)교육으로 문화적 저력을 다진다"[47]가 그것이다. 즉, 슝안신구의 정위는 징진지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여 지역 혁신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징진지에 세계도시군 건설을 가속화하는 기점 역할이다. 물론, 천년 수림 및 바이양뎬(白洋淀)의 생태 환경을 관리·복원하여 생태도시의 면모 또한 수립하고자 하지만, 슝안신구의 가장 두드러진 목표는 중국의 '실리콘밸리'를 건설하여 세계 최첨단 과학기술과 인재를 흡수한 후 여기서 세계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건설을 진행한 6년 동안 슝안신구가 표방한 것이 "세계적 안목(世界眼光), 국제 표준(国际标准), 중국 특색(中国特色), 선도적 위치(高点定位)"라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목표는 비단 상투적인 구호에 그치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해 여러 대학교의 유입이 가장 눈에 띄는데, 北京交通大学, 中国地质大学,

---

44) 温红彦·张炜·张志锋·王洲, "雄安新区建设，总书记心中的"千年大计", 『人民日报』, 2022.03.31., https://wap.peopleapp.com [2023.10.28.]

45) 安蓓·高敬·严赋憬·张涛, "习近平总书记指引雄安新区规划建设的故事", 『新华社』, 2023.05.12., https://www.gov.cn [2023.11.01.]

46) 周毅仁, "高标准, 高质量建设雄安新区", 『光明日报』, 2023.04.04., https://baijiahao.baidu.com [2023.11.02.]

47) 刘勇·张悦, 「雄安: 顶级新区的顶层文化设计」, 『北京联合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第15卷第3期, 北京联合大学, 2017.07., p.6. "1. 打通首都圈文脉 2. 融合世界先进文化 3. 以人文精神引领科技发展 4. 以素质文明守护生态文明 5. 以教育夯实新区文化底蕴."

北京科技大学, 北京林业大学 등은 이전 계획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 7월에 北京语言大学은 캠퍼스를 슝안신구로 이전하기로 확정했다.

슝안이 신도시 적합지로 결정된 데에는 퉁저우와 유사하게 지리적 위치와 역사문화적 맥락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슝안신구 지역은 징진지의 3곳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베이징이나 톈진과 교류하기에 용이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슝안의 역사문화적 지역성이다. 이곳은 중화문명을 잉태한 문화의 강 고역수(古易水) 일대라는 점, 중국 역사상 정치·군사·무역과 교통의 요충지였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다원문화가 이곳에서 충돌·교류·융합하고 발전하여 중국 문화의 다원적 문화통합을 성취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슝안은 중국 상업문화의 발생지일 뿐 아니라,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외무역이 이루어진 곳, 몽골·서역·유럽과의 무역이라는 역사적 유산이 축적되어 있는 곳으로 재발견되었다. 즉, 거의 사장되었다시피 한 과거의 지역성을 발굴함으로써 "세계적 안목", "국제 표준", "선도적 위치"와 같은 현재 슝안신구 건설의 목표에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슝안신구 건설은 쇠락해져버린 과거 지역성을 현대적 방식으로 재현하는 행위 그 자체인 셈이다.

슝안신구 계획 초창기에 시진핑은 "슝안신구는 이전의 어떤 신구와도 완전히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이 신구 건설은 "'천년대계(千年大计)'이기에 '성급하지 않은(不急于求成)' 자세를 가져야 한다"[48]고 피력한다. 2022년에도 이와 상통하는 취지에서 "슝안신구는 고품격 발전을 이루어 국가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49]고 강조한다. 이 일련의 발언은, 슝안신구를 단순히 경제개발특구로 건설하려는 것이 아니라 슝안신구를 통해 새로운 개발모델과 발전이념을 구현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슝안신구는 선전(深圳), 상하이(上海) 푸동(浦东)에 이은 또 하나의 경제특구 즉 기존의 특구를 단순히 모방한 동질적 공간이 아니라, 대수도권 건설, '중국 속의 세계'를 건설하려는 중국의 오랜 의지와 역사가 비로소 구현되는 첨병도시로 계획된 셈이다. 슝안신구의 건설은 오랜 역사를 지닌 지역성에서 배태되었기에 당위적인 목표로 전환된다. 나아가 재발견된 지역성의 내용 즉 중화문명의 태동·다원적 문화통합·대외무역의 태동과 유산이라는 지역성은 징진지 및 중국의 분화된 욕망을 선도적인 세계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집단적 의지로 집약시키는 데 기여한다.

2023년 5월 10일 슝안신구를 방문한 시진핑은 좌담회를 개최하여 "슝안 신구는 대규모 건설을 통해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적 해소를 수행하는 단계에 이미 진입했다.

---

48) 刘勇·张悦, 「雄安: 顶级新区的顶层文化设计」, 『北京联合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第15卷第3期, 北京联合大学, 2017.07., p.6.

49) 习近平, "习近平在中国共产党第二十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统战新语』, 2022.10.26., https://www.zytzb.gov.cn [2023.11.05.]

이제 슝안신구 건설과 관련해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고품격 건설, 고품격 관리, 고품격 발전으로 전환되었다"[50]고 선언한다. 물론 이 선언은, 슝안신구의 건설 과정 자체가 징진지와 국가 전체가 "고품격 수준"의 유기체로 전화되는 과정임을 표명한 것이다. 슝안신구 건설은 소멸된 지역성을 재현·구현하여 강력한 구심력을 획득하는 공간 실천이기에, 구심력과 원심력이 양가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퉁저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4. 나오면서

이 글은 중국 징진지 협력발전이 계획되고 실천되는 과정에서, 역사적·문화적 자원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의 문화정책과 공간정책이 어떻게 관계 맺으며 실행되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했다. 논의 결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징진지의 세 지역인 베이징과 톈진, 허베이는 이전부터 각자 문화도시를 강조했다. 베이징은 황성문화를, 톈진은 조운문화를, 허베이는 직례문화를 각각 내세움으로써 문화적 정체성을 독자적으로 구축해갔다. 하지만 징진지 협력발전 계획은 징진지 세 지역을 연조문화의 공유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문화적 동질성과 차이성의 공존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베이징 중심의 3대 문화벨트 즉 대운하 문화벨트, 장성 문화벨트, 서산 영정하 문화벨트를 계획하고 실천한다. 이 3대 문화벨트를 통해 문화 기억과 문화공간을 연동하여 구성함으로써 징진지 지역인의 문화적 기억 형성을 베이징 중심의 동질적인 것으로 형성하고 또 이를 역사화한다. 중국 전통문화도시이자 수도인 베이징을 세계도시·메가시티로 고양하기 위해 이 기억의 규모화를 추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둘째, 징진지 협력발전의 계획과 실천 과정에서, 징진지 공간 재편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역성과 관련된 문화논리들이 작동하고 있다. 퉁저우를 부중심으로 건설하기 위해, 베이징의 동서 중축선인 창안제의 확장이라는 상상력이 작동할 뿐만 아니라 퉁저우의 미래 도시 정위를 운하와 관련지어 규정하고 실현한다. 부중심으로 재구성되고 있는 퉁저우는, 기존 베이징 중심의 역사·문화적 규정력·구심력이 징진지 세 지역의 격차·원심력을 장악하거나 구심력과 원심력이 충돌하고 있는 현장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신도시로 개발된 슝안신구는 퉁저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부중

50) 安蓓·高敬·严赋憬·张涛, "习近平总书记指引雄安新区规划建设的故事", 『新华社』, 2023.05.12., https://www.gov.cn [2023.11.01.]

심으로 개발될 퉁저우와 함께 '일체 양익(一体两翼)' 중 한쪽 날개를 담당하게 될 슝안신구는 세계 최첨단 과학기술과 인재를 흡수하여 중국의 '실리콘밸리'를 건설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삼았으며 "세계적 안목"·"국제 표준"·"선도적 위지" 등을 달성해야 할 가치로 삼았다. 슝안을 신도시로 지정한 인물은 시진핑이었지만, 이 지정은 역사문화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했다. 슝안의 역사적 지역성은 중화문명의 태동·다원적 문화통합·대외무역의 태동과 유산이었지만 이 지역성은 이미 소멸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 소멸된 지역성은, 징진지 및 중국의 분화된 욕망을 집단적 의지로 고양하고 슝안신구를 국제화·세계도시로 건설하려는 계획에 부합하기에 적극 소환되었다. 즉, 소멸된 지역성을 재현·구현하는 공간 실천, 미래 국가의 위상을 위한 모범으로 슝안신구 건설을 의미화 함으로써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

징진지 협력발전의 계획과 실천에 대한 연구는 드문 것이 현실정이다. 이 글의 의의는 그나마도 경제적 관점이나 도시공학적 관점에서 진행되었던 징진지 협력발전의 계획과 실천에 대한 이해를 문화적 측면에서 시도했다는 데 있다. 하지만 징진지 협력발전 개발은 아직 진행형이다. 따라서 이 개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옮김,『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清]孙承泽,『天府广记』(上册), 北京古籍出版社, 1982.

<논문>

霍艳虹,「基于“文化基因”视角的京杭大运河水文化遗产保护研究」, 天津大学博士论文, 2017.

郗志群·熊志鹏,「北京城市副中心文化建设的回顾与展望」,『新视野』, 02期, 中共北京市委党校·北京行政学院, 2020.

池志勇·刘　琳,「推进京津冀地域文化融合形成大区域文化的探索」,『产业与科技论坛』, 第15卷第3期, 河北省科学技术协会, 2016.

陈旭霞·张　平,「慷慨悲歌: 燕赵文化精神的根本标志——燕赵文化精神理论研讨会综述」,『河北学刊』, 第6期, 河北省社会科学院, 2014.

胡九龙,「北京三大文化带影响力比较分析」,『前线』, 10期, 中共北京市委, 2018.

姜　潇·蒋　芳·周润健,「中央城市工作会议点出的文化课题: 续“文脉” 提“气 质”」,『决策探索』, 第1期, 河南省人民政府发展研究中心, 2016.

李建平,「“三个文化带”与北京文化中心建设的思考」,『北京联合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第15卷第4期, 北京联合大学, 2017.

李彦冰,「北京西山红色文化的政治价值」,『前线』, 第2期, 中共北京市委, 2018.

刘　勇·姚舒扬,「文化认同与京津冀协同发展」,『北京联合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第3期, 北京联合大学, 2014.

刘　勇·张　悦,「雄安: 顶级新区的顶层文化设计」,『北京联合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第15卷第3期, 北京联合大学, 2017.

刘　岳·高俊良·方东杰,「西山永定河文化带红色文化内涵、特色及展示群打造」,『北京党史』, 第4期, 中共北京市委党史研究室, 2019.

陆大道,「京津冀城市群功能定位及协同发展」,『地理科学进展』, 第34卷 第3期, 中国地理学会, 2015.

路　璐,「擦亮大运河文化带这一国家名片」,『红旗文稿』, 第13期, 求是杂志社, 2019.

石晓冬·杨　明,「京津冀协同下的北京城市发展转型」,『北京规划建设』, 第5期, 北京市城市规划设计研究院, 2016.

王红茹,「专家解读《京津冀协同发展规划纲要》看点」,『中国经济周刊』, 第18期, 人民日报社, 2015.

王秀伟·白栎影, 「大运河国家文化公园建设的逻辑遵循与路径探索－－文化记忆与空间生产的双重理论视角」,『浙江社会科学』, 第10期, 浙江省社会科学界联合会, 2021.

王　铭·赵振烨,「京津冀多维联动发展：北京长城文化带建设新画卷」,『新视野』, 第2期, 中共北京市委党校·北京行政学院, 2022.

文　魁,「地缘经济与地缘文化——京津冀协同发展理论启示」,『前线』, 第11期, 中共北京市委, 2019.

徐　勇,「物的关系美学与“主体间性”－－徐则臣《北上》论」,『南方文坛』, 第3期, 广西文联, 2019.
杨　旸,「北京城市副中心行政办公区城市风貌特色研究」,『北京规划建设』, 第1期, 北京市城市规划设计研究院, 2021.
赵　弘·陈智国, 「将通州建设成为北京城市副中心的战略思考」, 『北京市经济管理干部学院学报』, 第26卷第1期, 北京经济管理职业学院, 2011.

<기타자료>
安　蓓·高　敬·严赋憬·张　涛, “习近平总书记指引雄安新区规划建设的故事”,『新华社』, 2023.05.12., https://www.gov.cn [2023.11.01.]
杜尚泽·杨　旭, “从十年里的三场座谈会，看总书记这样引领京津冀协同发展”,『国际在线』, 2023.05.15., https://baijiahao.baidu.com [2023.11.08.]
高珊珊, “速看! 北京城市副中心控制性详细规划(街区层面)全文来了”,『北京日报客户端』, 2019.01.04., https://baijiahao.baidu.com [2023.10.18.]
刘源隆, “千年文脉融入生活, 京津冀重现运河活力”,『中国文化报』, 2021.07.15., https://baijiahao.baidu.com [2023.10.13.]
陆　健, “深度解读 | 带您了解北京城市副中心控规”,『北京新闻广播』, 2019.01.04., https://mp.weixin.qq.com [2023.10.30.]
武文娟, “通州区打造‘大运河文化+’系列品牌”,『青瞳视角』, 2023.05.26., https://baijiahao.baidu.com [2023.10.02.]
吴耀明, “习近平总书记强调的‘文脉’”,『学习时报』, 2023.10.25., http://www.qstheory.cn [2023.11.05.]
温红彦·张　炜·张志锋·王　洲, “雄安新区建设，总书记心中的“千年大计”“,『人民日报』, 2022.03.31., https://wap.peopleapp.com [2023.10.28.]
习近平, “习近平在中国共产党第二十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统战新语』, 2022.10.26.，https://www.zytzb.gov.cn [2023.11.05.]
叶书利, “北京政府四套班子正式迁往通州，北三县与通州一体化规划或春节后公布”,『壹书生说房』 2019.01.12., https://www.jiwu.com [2023.11.08.]
周毅仁, “高标准, 高质量建设雄安新区”,『光明日报』, 2023.04.04., https://baijiahao.baidu.com [2023.11.02.]
中共中央办公厅·国务院办公厅印发, “大运河文化保护传承利用规划纲要”,『新华社』, 2019.05.09., https://www.gov.cn [2023.11.05.]
中共中央·国务院, “京津冀协同发展规划纲要”,『百度百科』, 2015.04.30., https://baike.baidu.com [2023.09.10.]
“中国共产党第十九次全国代表大会在京开幕”,『国务院新闻办公室网站』, 2017.10.18., http://www.scio.gov.cn [2023.11.07.]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京津冀, 文化, 空间重组, 通州, 雄安新区, 世界城市
	영문	Jing-Jin-Ji, Culture, Space reorganization, Tongzhou, Xiong'an New Area, City of the World

Cultural Strategy for Planning and Practicing Jing-Jin-Ji Cooperative Development

Bark Jeong-Hee

This paper examines how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are used in the process in which the Chinese Jing-Jin-Ji cooperative development is planned and practiced, and how Chinese cultural and spatial policies are associated and performed. Three regions of Jing-Jin-Ji, Beijing, Tianjin and Hebei, have shared their own cultural cities. The Jing-Jin-Ji cooperative development project reorganized three regions of Jing-Jin-Ji as a homogeneous space sharing the Yeonjo culture. On the other hand, several kinds of cultural logic, related with the local identity, are operated to smoothly reorganize the Jing-Jin-Ji space, in planning and practicing the Jing-Jin-Ji cooperative development. To construct Tōngzhōu Qū as a sub-center, the imagination for extending Cháng'ānje, the Beijing's east-west pivotal line is operated, but also Zhèng Yù, the future city of Tōngzhōu Qū is stipulated and realized in relation to canals. Then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designates Xiongan New Area as a new town development district which symbolizes the Chinese Silicon Valley. In the past, Xiongan acquired localities including the birth of the Chinese civilization, the integration of plural cultures and the birth and the heritage of the foreign trade. Such lost localities are, however, rediscovered and summoned, in planning and practicing the Jing-Jin-Ji cooperative development, because the localities do not only correspond to the current plan and practice for improving the self-esteem and constructing the international and global city, but also can grant legitimacy to them.

저 자	박정희 / 朴貞姬 / Bark Jeong-Hee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3.11.10.	심 사 일	2023.12.07.	게재확정일	2023.12.14.